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과 과제*

- 부산광역시 K구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K District of Busan

장 덕 현(Durk Hyun Ch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조사결과 |
| II. 연구내용과 방법 | 1. 작은도서관 방문조사 결과 |
| 1. 연구내용 | 2. 관리자 의견조사 |
| 2. 연구방법 | 3.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
| III. 작은도서관의 설립 운영 근거 | V. 결론 |
| 1. 작은도서관의 법률적 근거 | |

초 록

최근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증가세가 꾸준하다. 한편으로는 작은도서관 특유의 친근함과 융통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지자체들이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 운영하고 있지만, 양적 증가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방문 조사하여, 현행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의의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방문 조사를 통한 관찰과 운영자들과의 면담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경영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for small library services in Busan metro area.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of small libraries that provide user friendly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s that is interested in such roles as community spaces based on the familiarity and flexibility of small libraries keep building and operating small libraries in Korea. This study, in this regard, surveyed the small librarie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 specific local government and analyzed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in managing small libraries. In this study, we obtained data from observations, dialogues with managers and users through actual visit surveys to find out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local small libraries.

Keywords: Public Library, Small Library, Library Administration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논문접수: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73-91,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73>]

I. 서론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6,05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4개 증가한 수치이며, 이 가운데 공립 작은도서관이 1,407개관(23.2%), 사립작은도서관이 4,651개관(76.8%)이다. 작은도서관 이용자는 연 37,072,079명으로 2016년에 비하여 약 300만 명이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일상적 요구에 밀착된 생활형 도서관으로 호응을 받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어왔다. 반면,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고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설, 장서, 인력, 교류협력, 이용자, 서비스 등 여러 부분에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관계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대보다는 운영 중인 도서관이 내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인식과의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계속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꾸준한 증가세이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설립·운영하므로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반면,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과 인접한 지역에서 공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공적인 정보봉사와 독서지원을 수행하는 대안으로의 작은도서관 공약이 크고 작은 선거때마다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확대되어 왔다.

통계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2015년에 1,364개에서 2016년 1,403개로 늘어났으며, 2017년 기준 1,407개로 다소 주춤하지만, 이는 작은도서관 가운데 264㎡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의 공립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분관)으로 전환 등록된 면이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생활형 SOC 정책의 하나로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예산 23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작은도서관(243개)을 모든 시군구에 1곳씩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공립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특유의 친근함과 융통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지자체들이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운영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내실은 양적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사례조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방문 조사와 관찰을 수행하고 운영자 및 이용자와의 대화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 그리고 그 발전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공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여가시간 증대와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 증가 등에 따라 지자체가 건립하는 공립 작은도서관도 증가일로에 있다.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위주로 성장해 온 면이 있다. 이렇듯, 공·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주체와 운영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시설, 운영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추진에 수반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 작은도서관진흥법과 작은도서관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규정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지원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K구의 작은도서관운영지원조례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K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K구에는 모두 17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방문하여 운영지원체제와, 장서, 그리고 인력 등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근거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에 총 1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 K구에는 각 동마다 하나씩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작은도서관을 모두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구청 담당자와 실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그리고 순회사서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방문조사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면담은 비구조화된 질문과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대상이 된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내에 소재하는 17개의 작은도서관으로, 대략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표 1〉 K구 작은도서관 현황

| 도서관 명 | 개관일 | 연면적 | 열람석 | 도서수 | 이용자수 |
|--------|------------|-------------------|-----|---------|--------|
| A작은도서관 | 2013.4.12 | 313m ² | 80석 | 12,261 | 26,346 |
| B작은도서관 | 2012.9.26 | 51m ² | 24석 | 4,449 | 6,141 |
| C작은도서관 | 2004.12.22 | 190m ² | 81석 | 13,939 | 8,832 |
| D작은도서관 | 2012.2.1 | 330m ² | 74석 | 11,881 | 8,825 |
| E작은도서관 | 2014.8.22 | 224m ² | 53석 | 8,865 | 26,198 |
| F작은도서관 | 2017.3.15 | 318m ² | 70석 | 5,363 | 11,890 |
| G작은도서관 | 2004.8.12 | 194m ² | 60석 | 22,049 | 21,635 |
| H작은도서관 | 2012.7.20 | 236m ² | 68석 | 10,450 | 15,151 |
| I작은도서관 | 2011.3.22 | 130m ² | 21석 | 9,177 | 10,795 |
| J작은도서관 | 2012.3.2 | 171m ² | 57석 | 9,245 | 14,070 |
| K작은도서관 | 2015.10.6 | 236m ² | 71석 | 6,658 | 19,548 |
| L작은도서관 | 2005.1.1 | 166m ² | 72석 | 6,337 | 13,371 |
| M작은도서관 | 2016.12.5 | 342m ² | 90석 | 8,320 | 79,635 |
| N작은도서관 | 2013.9.5 | 84m ² | 19석 | 5,377 | 3,993 |
| O작은도서관 | 2013.8.14 | 200m ² | 31석 | 10,121 | 12,114 |
| P작은도서관 | 2009.1.7 | 132m ² | 17석 | 11,9066 | 5,859 |
| Q작은도서관 | 2017.4.19 | 250m ² | 80석 | 4,903 | 9,986 |

Ⅲ. 작은도서관의 설립 운영·근거

1. 작은도서관의 법률적 근거

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2009년 3월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도서관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은 건물 33m²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에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이다. 작은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2월 17일 제정 및 2016년 5월에 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은 대체로 『도서관법』을 따르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나. 조례

작은도서관진흥법(법률 제 13973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정신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데, 2017년 9월 기준 자치법규시스템(ELIS)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4곳, 기초지방자치단체 125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

(1) 부산광역시 조례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2016년 2월 17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하도록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작은도서관 신규조성시 지식정보, 독서서비스 수행에 적정한 시설규모인 건물면적 100㎡, 열람석 10석, 장서 3,000권 이상 규모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부산광역시 K구 조례

부산의 경우, 총 1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의 총 10개 자치구(군)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중 K구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K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913호(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1175호])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 이용, 운영인력, 자료의 이관 및 폐기), 운영위원회 관련,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지원, 위탁,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도서관의 목적 및 정의에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 및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작은도서관’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역 생활권에 위치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의 책임을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수립하며, 공간 설비 제공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지역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기능, 위원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조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외에 근무인력의 수나 자격 등 배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자의 전문성 요건 등에 관한 언급이 미비하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 <p>제7조(운영인력)</p> <p>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근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

IV. 조사결과

1. 작은도서관 방문조사 결과

K구 관내의 17개 공립 작은도서관들을 방문하여 운영지원체제와, 인력, 장서,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운영자들과 면담을 하였다. 방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작은도서관

A작은도서관은 2013년 봄에 개관하였다.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어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이용자층이 매우 다양하고 두터운 곳이었다. 이 곳은 관내 작은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작은도서관이지만 유아도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들이 많았다. 면담 결과 인력 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순회사서 외에, 1명의 공공근로 인력과 2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으나, 아무래도 교체가 잦고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혼란이 있었다. 반면,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어 이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공간정돈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어린이 이용자들도 상당수 있어서 독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B작은도서관

2012년 가을 개관한 B작은도서관은 고갯길의 중간 지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행복센터 1층에 경로당과 함께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1개 노선의 정류장이 도서관에서 멀지 않아 마을버스 이용시 접근이 용이한 반면, 그 외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다. 관내 작은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작았고,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번갈아가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규모가 작아 다양한 장서 확보가 어려우므로 신간, 또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장서를 구비하고 장서 교체 주기를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다. 경로당이 함께 있어 노년층 이용자가 많았다. 작업장도 함께 위치하고 있어 잦은 소음이 발생하며, 앞마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간혹 회식이나 음주가 동반되는 모임을 갖는 문제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 공간 분리 문제는 작은도서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작은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필요한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건립시부터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방음시설을 갖추거나 추가적인 확장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 C작은도서관

2004년 12월 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자리를 잡고 개관한 작은도서관이다. 1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이용자가 많은 반면, 작은도서관이 주민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3층의 주민 자치 프로그램(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등) 운영 시 소음이 발생하므로 자료이용과 독서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설 일부에서 노후화 현상이 관찰되어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다. 운영은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자 4명이 맡고 있었는데, 5-6명 정도의 동아리 회원이 운영을 돕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료의 배가상태가 일관성이 없었는데,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가 자주 변경되어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되지 않는 오래된 도서들의 경우 장서점검을 통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용자가 많은 반면,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간도서나 베스트셀러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4) D작은도서관

2012년 2월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지하철 역에서 25분 정도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다만, 주변에 빌라 등이 밀집해 있어 이웃 주민들이 많은 편이었다. 운영은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타 도서관에 비하여 신간자료가 많고, 여유 공간도 많은 편이었다.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큰 강의실이 있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열람실은 칸막이가 갖추어져 있었다. 작은도서관 네이머카페와 페이스북을 운영중지만, 페이스북보다는 카페를 통해 공지사항 등이 공고되고 있었

다. 이 곳은 개관한지 오래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넓고 깨끗한 시설을 갖춘 작은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어린이 자료실이나 강의실의 경우 오전에는 소등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 운영자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작은도서관으로서는 드물게 건물 뒤 편으로 외부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홍보를 위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이벤트나 도서교환 행사 등을 기획하면 좋을 것으로 보였다.

(5) E작은도서관

E작은도서관은 관내 작은도서관 중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서관으로, 2014년 여름에 개관하였다. 주변에 규모가 작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가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자가 매우 많았다. 청소년들은 주로 학습공간 이용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지만 어린이나 성인 위주의 자료 이용자가 많은데 비하여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가 누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 각 1명인 운영 인력 보강이 필요하였다. 자체적인 독서동아리 활동이 활발한데, 특히 인문과 고전 동아리 회장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탓인지, 운영 독서동아리가 작은도서관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다. 이용인원이 많다보니 와이파이 이용에 대한 민원이 있어 AP와 공유기 확대 설치 및 증폭기 설치하거나 이용자에게 한해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였다. 도서기증이 많은데 배가할 공간이 부족하여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재기증한 예가 있으므로, 추가 공간을 확보하거나 장서점검을 통해 서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6) F작은도서관

2017년 봄에 개관한 F작은도서관은 주택가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3층 건물로 특이하게도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이 있다. 운영은 공공근로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맡고 있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와 기업의 협업사업으로 지었으며 육아사랑방이 마련되어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영·유아 부모들이 북적이다. 장난감 300여 점을 갖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2층은 어린이열람실, 그리고 3층은 일반열람실과 강의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이지만, 입지가 좋고 공동육아를 통하여 장난감대여와 무료 놀이 프로그램, 독서왕 선발대회, 책 나눔 행사, 독서화 그리기, 동아리 결성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7) G작은도서관

2004년 8월에 개관한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으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주민자치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건물의 측면에 주민자치센터와는 동떨어진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좁은 입구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작은도서관으로 이동하는 동선에 대한 안내가 보다 잘 구비되어 있다면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어린이자료실이 다소 협소하고 부족하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지침과 이용안내가 잘 게시되어 있고 자료의 정리 상태도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통합대출 이용도 많고 공공근로자(1명)과 자원봉사자(4명) 관리도 잘 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응대를 적절하게 잘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었다. 인근 공공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출이 활발한 편인데, 검색대가 없어 일일이 검색을 대신해 주고 있으므로 자료검색을 위한 기기지원이 필요하였다. 또한 여름 무더위를 피해 작은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많은 반면에 전기요금 지원이 부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8) H작은도서관

2012년 여름에 개관하였다. 시장으로 이어지는 주택가 한 편에 다소 복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안내 표지가 부족해 다소 불편하였다. 전체 2층 건물로 1층은 어린이열람실, 2층은 일반열람실로 사용하고 있어, 2층에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았다. 어린이자료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 반면 일반자료는 부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신간이 부족하였다. 공공근로와 자원봉사 각 1명씩 번갈아가며 운영을 맡고 있어, 장서점검을 실시하여 연체 및 분실도서 정리, 자료 폐기, 연체 이용자 정리, 그리고 현재의 수입순 배가체계 개선 등을 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강의실과 열람실에 개인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주변환경과 외부 소음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이 잦았다. 또한 실내 소음 방지와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수칙을 정하여 공지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인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오가는 길에 작은도서관에 잠깐 들러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곳이었다.

(9) I작은도서관

2011년 3월에 개관한 작은도서관이다, 운영은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각 1인이 맡고 있었으나 자원봉사자가 업무에 익숙해 질 즈음이 되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연속성이 낮았다. 인근에 경로당이 있어 노년층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서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자료는 주로 신간 위주로 구입하며, 따라서 주민들의 희망도서를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다. 독서 동아리가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노년층 이용자가 많으므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건강, 취미 등의 자료를 확충하고 대활자도서, 그리고 돋보기 등 독서보조기기 구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실, 노년층을 대상

으로 한 자서전 쓰기교실 프로그램 등 노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였다. 운영자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용자들의 반응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 J작은도서관

J 작은도서관은 2012년 3월 OO시장 내에 있는 3층 주택을 매입한 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가까운 곳에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시장의 외곽 저소득층, 이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남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접근하기는 용이한 반면, 북쪽의 큰 도로에서 도서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야 하므로 가시성이 높은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였다. 입지는 주택 밀집 지역으로, 지역 거주자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는 높다. 남쪽과 서쪽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반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근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운영은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 각 1인이 맡고 있었다.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오가는 길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보러 오는 주부 등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 잠깐 들러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역 특성상 이주노동자 중심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므로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자료 코너 등을 설치하고, 아울러 내국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 또는 세계시민 교육 등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11) K작은도서관

2015년 가을에 개관한 작은도서관으로 입지와 환경 시설 측면에서 뛰어나다. 입지상 서편은 대로와 공단지역이지만, 동남쪽으로 반경 250m 이내에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가 있고, 동편과 남쪽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반면,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지 않고, 주민자치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북스타트-내 생애 첫 책과 진로탐색 교실 등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지만, 공공근로자 1인과 자원봉사자 1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규 개관 작은도서관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인근의 대로에 비하여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으므로 적절한 안내판 등이 필요하다.

(12) L작은도서관

2015년 1월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개관하였다. 주변에 크고 작은 아파트단지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특히, 구청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사이트가 개

설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들의 경우에는 수록 정보가 부족하고 업데이트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탓인지 오히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상가변영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K구 내 작은도서관 중 이용자와 장서 규모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서가 없어서 체계적인 장서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운영위원장은 “사서가 없다 보니 주간에는 공공근로자, 야간과 주말에는 자원봉사자가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장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공간 리모델링 후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열람실, 프로그램실, 공부방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활용도도 높았다. 다만,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특히 여름철 온도와 습도 등 환경관리가 어려웠다.

(13) M작은도서관

2016년 12월에 개관하였다. 2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이의 자투리땅에 지은 작은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이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운동기구 사이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계단책방, 아기방, 이야기방이 있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 다락책방, 발코니로 이뤄진다. 공간은 투명한 유리로 분리되어 있어 소음을 상당히 줄이고 있었다. 옥상도 책을 읽다가 머리를 식히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이 작은도서관은 독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해 이용자 수가 부산 지역 작은도서관 가운데 가장 많았던 반면, 운영은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인력 보강이 필요하였다.

(14) N작은도서관

2013년 9월에 개관하였다. 대로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도로 인근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부방이자 공동작업장인 마을공동체 시설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이 센터 1층에 위치해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서관보다는 이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평균 크기의 주택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시설이 비교적 깨끗하고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용이하므로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주변 지역에 꾸준히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운영은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

(15) O작은도서관

2009년 1월에 개관하였다.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도 많고,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다. 운영은 공공근로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담당하

고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도 잘 되고 있어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근처에 위치한 3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청소년을 위한 자료 구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근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우므로 어린이자료 등 독서자료 확충에 따라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이기도 하다.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지역 기업으로부터의 자료기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가 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비이용도서는 제적할 필요가 있다. 1층 어린이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곤 하는데, 공간분리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어린이 자료실의 특성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다보니 순회사서의 업무도 많은 편인데, 순회사서의 사무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순회사서는 해당 작은도서관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순회사서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배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업무효율을 위해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6) P작은도서관

P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도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으로부터 도서기증도 받는 등 운영위원회와 독서동아리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작은 도서관이었다. 다만, 건물이 경사로와 셋길에 임해 있고 규모가 작아 안내판이나 사인 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였다. 이 곳은 공공근로자 1인과 자원봉사자 1인이 운영을 맡고 있었지만, 지역 내 관광명소 진입로에 위치해 있어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를 비치하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접목한 리플렛 등을 개발하면 호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협소한 공간에 비하여 벽 전체가 서가와 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어른용 자료실인 모듬학습터에 서가가 부족하여 어린이 자료코너에 성인용 문학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현재로서는 공간 확충이 어려우므로 오래된 책들을 폐기함으로써 창을 확보하고 개방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주 이용자층이 어린이들로 방학기간에는 이용자의 수가 감소하므로, 현재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용자층을 보다 폭넓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웃주민들(특히 노년층) 등의 요구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17) Q작은도서관

2017년 4월에 개관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답게 비교적 규모가 크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이용자가 많은 편이었다. 공공근로 1인과 자원봉사 1인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자가 많았다. 전체 3층 건물 중 1층은 주차장과 무인반납함, 2층에는

어린이 열람실이 있으며, 3층에는 일반열람실과 강의실이 있다. 방학을 이용하요 유아를 위한 그림책 특강,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논술, 클레이와 공예, 그리고 성인을 위한 학부모코칭과 독서지도, 공예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2. 관리자 의견조사

K구 작은도서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작은도서관 근무자는 총 35명으로 공공근로 10명 자원봉사 25명이었으며, 남성이 4명, 여성이 31명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21명, 60%)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 고용형태였으며, 전업주부와 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준비생이 23명으로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구조화 질문지에 근거한 개방형 질문을 하여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는 작은도서관 방문 중에 이루어졌다.

우선 전체 조사대상 35명 가운데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그 외에 사서자격은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단체 등이 주관하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건 있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자료의 대출/반납(9명, 25.7%)과 자료관리(8명, 22.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관리, 자료배가/정리(각 5명, 14.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57.1%(20명)가 자료 대출/반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하였다

작은도서관 관리자들은 장서 부족, 인력 문제, 시설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 문제로, 무엇보다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저하, 인수인계 및 업무처리 부실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와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단기적인 공공근로 인력의 사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와 이로 인해 지속적인 도서관 관리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장서량의 부족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현재의 장서 구성의 불균형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료 수집 및 장서구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신간 도서의 신속한 입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면에서는 특히 증가하는 장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장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자용 업무공간의 부족과, 업무용 컴퓨터 기기 등의 노후로 인해 대출/반납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도서관 내·외부 소음 문제의 해결, 냉난방 시설의 개선과 무선 인터넷 설치, 자료 검색대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도서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뿐만 아니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 내부에서의 프로그

램 진행시 방음이 되지 않아 소음 문제로 학습 또는 독서를 하는 이용자들의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 공간의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다.

운영에 있어서는 작은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과 적용, 그리고 도서관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 관리자들이 이용자 요구나 민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과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 도서관 마다 다른 대처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도 혼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다시 민원이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작은도서관 회원증 발급 제도, 작은도서관간 혹은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 회원 통합 관리의 필요성,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3.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방안

가. 작은도서관 지원 체제

지자체에 존재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은 일정 정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구청과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K구 역시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관내의 17개 공립작은도서관 중 14개는 구 평생학습과가 직접 운영하고 3개의 작은도서관은 동주민센터가 운영을 맡는 이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K구 작은도서관 운영형태(직영 vs. 동주민센터) 비교

| 관리 | 동주민센터 | | | 평생학습과 |
|---------------|--|--------------------|--|--|
| | C, G, L작은도서관(3개소) | | | 나머지 (14개소) |
| 예산 | □ 동주민센터 자체 예산 : 49,920천원 ·C : 16,640천원 ·G : 16,440천원 ·L : 16,840천원 ※ 시비지원 29,902천원 (총예산액중 시비 약60%, 지원대상중 약 73%) | | | □ 평생학습과 예산 : 476,635천원 □ 공공근로 예산(3분기) : 163,223천원 * 총예산 653,772천원(인건비 446,332천원) |
| 운영 시간 | C | G | L | 화~일 : 09:00~21:00 ※ 월요일 휴관 |
| | 월~금 10:00~20:00 토~일 10:00~22:00 | 일~월 09:00~21:00 | 월 10:00~18:00 화~일 10:00~21:00 | |
| 운영 인력 (교대 근무) | C | G | L | A: 3명(공공근로 1, 자원봉사 2) 기타 : 2명(공공근로 1, 자원봉사 1) |
| | 공공근로1 자원봉사4 동아리회원 5 | 공공근로1 자원봉사4 | 공공근로1 자원봉사1 | |

이렇게 운영체제가 상이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재정이나 인력 등의 지원 체계뿐 아니라 개관시간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과 평생학습과가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각각 운영일과 운영시간 도 통일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장기적으로 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영 작은도서관의 인력과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구청에 작은도서관팀을 신설하거나, 관내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운영 전단계로 시설물의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도서관리 및 인력은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통합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일례로 의정부시 등에서 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팀을 설치한 바 있다. 작은도서관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작은도서관 운영 담당자나 실무자들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 신규건립과 지원을 전담하여 정부와 시 등의 각종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과 작은도서관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센터로서 기능하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최소규모를 상회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재조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K구의 경우 최근 관내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이 건물이 연면적 608.15㎡(183.97평)로 최소규모의 공공도서관 면적을 상회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개관하였다.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될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비와 운영비 등 지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

우선, 작은도서관 개관시간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저녁 8시 이후 야간에는 일부 학습공간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운영시간은 14개 작은도서관 모두 10:00-20:00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방학중에는 09:00-20:00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 동주민센터 운영 작은도서관은 휴관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평생학습과 운영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의 방문을 위하여 토/일요일에 개관하는 대신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인근의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 동주민센터 운영 작은도서관들은 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공부를 위한 공간 제공 기능이 많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개관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모든 작은도서관에 이와 같은 운영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도서관은 자료의 정리와 배가(서가상 자료 배치), 자료점검, 시설 및 기자재 보수 등을 위하여 반드시 휴관일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휴관일 없이 운영되는 동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에도 점차적으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관일은 월요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강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월요일 격주 휴관제(1/3주 또는 2/4주 월요일 휴관 등)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환경정비 및 공간 분리도 필요한데,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가용공간이 부족하고, 강의실이 열람실 내에 있는 경우 공간분리 또는 방음시설이 필요하다. 향후 건립되는 작은도서관은 벽면, 출입문 등의 방음에 유의하고 열람실 내에 플랜트식재나 파티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존 건물은 층별 배치 조정으로 강의실 분리 복도 및 개별 출입구 설치로 방음차단 또는 학습실 설치를 재고하여야 한다. 동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취미 교실 또는 문화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의 소음 등의 차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장서관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장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장서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대 지원, 둘째, 부산광역시 및 부산대표도서관 지원 자료구입비 확보, 셋째, 신규도서 구입을 위한 후원 모금, 넷째, 사회적 공헌 기업, 독서재단을 통한 도서 구입예산 확보, 다섯째, 책나눔, 북리펀드 등 도서기증 활성화, 여섯째, 연간 전체 장서의 3% 이상의 신간도서 구입을 목표로 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자료는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들은 10년 주기로 자료 전체가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vans & Saponaro, 2012: 149). K구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관내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에서 장서가 확충되어도 자료를 비치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관찰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장서점검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도서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 후 도서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하며, 장서점검기간 동안 휴관할 수 있다.

특성화 장서 개발도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주변 여건과 주민구성을 고려한 장서구성으로 예를 들어 J작은도서관의 경우 다문화장서와 프로그램 지원/인근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자료 코너 개설, O작은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특화도서 구비 등, 그리고 I작은도서관은 노년층을 위한 대활자 도서 및 노년층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건강관련 자료 제공, 노년

층을 위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KOLASY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 도서관 정보화 초기 단계에 보급된 CS(Client-Server) 형식의 도서관리 시스템인 KOLAS III의 간략버전이다. 이 시스템은 작은도서관내 문서검색, 대출관리 등만 가능하며, K구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는 물론 작은도서관 간에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도서 상호대차서비스 등에 불편함이 누적되고 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서 코라스를 설치하면 전국 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도서검색이 가능하나, 구축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전문사서가 필요하며, 시스템 변경시 회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구별로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상호협력망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향후 부산대표도서관(2020년 상반기 개관예정) 중심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추진중이므로 이에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전문인력 확보

구 단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또는 관내 공공도서관) 내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관내 작은도서관 업무 및 중앙정부, 지역, 후원단체 등의 공모사업 준비 전담인력도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도서관의 전담사서 운영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는 자치구당 1명(총 25명)의 전담사서직원이 배치되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은 자치구 대표 공공도서관 소속으로, 작은도서관 전담사서로 배치되어 장서관리, 독서행사,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 자치구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며, 서울시(서울도서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공도서관의 축적된 자원을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도 맡고 있다.

아울러 실무 전문인력 배치 확충도 필요한데, 현재 순회사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K구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가 주로 운영을 맡고, 7명의 순회사서가 평균 2개의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로서는 순회사서의 업무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보다는 공공근로자의 업무 태도나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로는 업무의 연속성과 소속감이 저하되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순회사서 제도가 아닌 작은도서관 1관당 1인의 전담사서가 근무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자원봉사/공공근로를 배치할 경우 사서/평생교육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선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직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

[시행 2014.10.2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013호, 2014.10.24., 전부개정]

제8조(운영인력)

(중략)

③ (작은도서관)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관장이 공개모집하여 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평생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사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소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V. 결론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특유의 밀접성과 친밀성을 토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작은도서관은 동네 도서관으로서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건물이 작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간 위주의 자료와 주민의 일상에 밀착된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 또한 작은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전문인력의 배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장서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도서관에서도 크고 작은 민원들에 제기되는데, 고정된 인력이 없어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어, 상주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성의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은 약간의 추가적인 지원만 보장된다면 공공도서관의 전방위 서비스 포인트로서 생활기반 사회간접자본으로서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산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들을 방문, 관찰하고 운영자 및 이용자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을 나누고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공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부산시 특정 기초자치단체(구)에 한정된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작은도서관이 친밀성과 유연성이라는 특유의 장점을 살려 풀뿌리 독서문화의 조성과 주민들의 자발

적 참여,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지는 장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성을 갖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보일, 조미아, 변현주. 2015.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9(4): 31-52.
- 이성신, 성희자, 이세나. 2017.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대구 안심지역의 아띠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77-97.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Evans, G. E. & Saponaro, M. Z. 2012. *Collection Management Basics*.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B. Cho, M. & Byeon, H. 2015. "Study on Promotion of Small Libraries through an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ir 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31-52.
- Lee, S. Sung, H & Lee S. 2017. "Small Libraries as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Atti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pp.77-97.